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2-21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2-21
2021 년 02 월 21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251568336](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251568336)

kr.theanarchistlibrary.org

2021 년 02 월 21 일

차례

1. [기부보다더중요한것]	3
2. [누구를위한기술인가? 누구를위한금융인가?]	4
3. [그야조합원들을위한의협이지...]	5
4. [역겨움의연속]	6

에드러났다. 이는부정하지못할사실이다. 그러나이들만큼이나더욱억겨운자들이전면에등장하기시작했다. 미국과유럽연합을위시로하는소위서구권정부들이다.

그들은미얀마군부의행위를규탄하면서’ 민주주의’ 를회복해야한다느니, 군부를압박해야한다느니하면서수차례씩공허한목소리를앵앵거리고있다. 그들은자국의국제자본이세계의독재정권과군부독재에부역하면서이윤을착취하는것을방관하면서, 그들을수호하는주제에허울뿐인제재와민주주의를외친다. 정작노동계급의자유를향한갈망을짓누르는것은그들이수호하는자본인데말이다!

미얀마군부에맞선미얀마노동자인민의투쟁이연이어전개되고있다. 미국과EU 등의국제자본과제국주의세력의후원이아닌, 그들스스로의자유를향한갈망속에서투쟁은연이어일어나고있다. 인민의해방과자유는어떠한다른누군가가대신해주는것도, 정치인이대신해주는것도, 억겨운’ 자유민주주의’ 열강이대신해주는것도아니다.

오직저항하는노동자인민그스스로가쟁취할수있을뿐이다. 미얀마군부파쇼들의투쟁에맞서우리아나키스트연대또한미얀마인민들과연대한다.

” 미얀마시민들이전하는참혹한유혈현장...군부실탄사격으로최소 4 명사망” :

<http://naver.me/xkxS90aA>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단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역시 집단광기의 소치임 역시 분명해보인다. 정부의 이 무시무시한 “단죄”는, 이번에는 의협을 향했지만, 언제고 인민대중의 자발적 집단 행동 전체를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역사에서 계속 그러했고, 앞으로도 계속 말이다.

국무총리는 “누구를 위한 의협이나”고 묻는다. 그리고 그 답은 당연히 계급의 협회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의사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든 직능 단체가 의협이고, 의협의 기능은 오롯이 의사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다. 사회의 공공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방역 대책에 복무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 의협에게 그 회원들의 이익에 복무하지 말고 사회 전체의 의료 복지에 복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옳다면,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경제지표들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도 옳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독일 민족의 레벤스라움을 확보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숙청한 나치 역시 옳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의협의 집단 무단 휴진 협박은, 역겨운 요구안을 가지고, 가장 동의할 수 없는 시점에 진행하는 집단 행동에 대한 협박이다. 하지만, 그러한 집단 행동 역시 의사라는 의협의 조직 구성원을 대표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인민대중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이, 그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여 자발적으로 집행하는 집단 행동의 자유는 어떠한 이유로도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의사들의 집단 무단 휴진을 부정하고, 단죄하는 것은, 그들의 집단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인민대중의 조직이어야 한다. “법”이나, “정부”나, 그들이 독점하고 있는 “행정력”이나 설 때가 아니다.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개새끼에게도 짓을 자유는 있다.

” 정세균 ” 누구를 위한 의협? 불법 집단 행동 시 단죄 ”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

4. [역겨움의 연속]

미안마에서 일어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군부 세력의 패악질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 외신의 보도에서 처음 실탄사격 보도가 나온 이후, 이제 그들은 실탄사격을 결코 주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벌써 최소 4 명의 미안마 시위대가 실탄에서 살당했고, 그 이전부터 집계해 본다면 분명히 더 많은 숫자가 군부의 폭압에 희생됐을 것이다.

미안마 군부의 행위는 언제나 그렇듯 역겹기 그지없다. 이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아웅산수지 여사와 군부에 타협하려 들었던 세력의 한계 역시 만천하

1. [기부보다 더 중요한 것]

국내 배달 앱 1 위 ‘배달의민족’ 창업자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의 장이 5천억원이 넘는,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여 화제가 됐다. 김의장은 “고등학교 때 손님들이 쓰던 식당 방에서 잠을 잘 정도로 넉넉하지 못했던 가정 형편에 어렵게 예술 대학을 나온” 본인의 성공을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하며 앞으로 더 큰 환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좋은 자세다. 부자가 자신의 것만 아니니 모두의 관심 덕분에 이룰 수 있었으니 그것을 나누고 싶다는 것은 분명 일정부분 우리가 강조하는 상호부조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다. 아니, 더 막대한 부를 손에 거머쥐고 도어느 것 하나 나누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넘치는 이 사회에서 김의장의 자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김의장에게 제안하고 싶어 이렇게 단평을 남긴다.

김의장이 환원한 부, 그것은 누구의 몫인가. 물론 아이디어를 현실화 하고 기회 비용을 투자해 배달의민족을 지금에 이르기까지 확장 시킨 데에 김의장의 공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직접 일선에서 땀 흘려 노동한 노동자들의 노동 없이는 단 하나도 가능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김의장이 분명히 기억했으면 한다. 배달 노동을 하다가 죽어간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들, 앱을 구축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날을 야근과 철야로 고생한 IT 노동자들, 그 외에도 부지기수의 노동자가 노동을 하며 배달의민족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바로 그 노동의 대가에서 적지 않은 부분이 김의장에게로 흘러갔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 금액을 받고 일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니 남은 부분은 온전히 김의장의 것이 아니냐고? 아니다. 김의장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책임이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다만, 애초에 그렇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짚은 말로 이유를 대체하도록 하겠다. 김의장이 ” 교육 불평등, 문화 예술 지원, 그리고 그 자선 단체들이 더욱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을 구상 ” 하고 있다면, 우선 그것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실현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자. 누군가의 시혜가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노동에 대한 몫으로도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다.

김의장이 지금껏 ‘음식 배달 중 사고를 당한 배달업 종사자 (라이더)’ 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쓰일 수 있게 기부한 것을, 김의장의 시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상호부조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자. 김의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노동에 대한 만족감도 올라가며 더 불어 노동으로 삶을 영위하는 개개인의 삶에의 총만 감역 시늉아 진다는 것을 말이다. 부디 이 단평이 김의장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

” 배민 창업자 김봉진 재산 절반 이상 기부... 5천억원 넘어 ” :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8030400030?input=1195m>

2. [누구를위한기술인가? 누구를위한금융인가?]

최근테슬라최고경영자 (CEO) 인일론머스크가비트코인을가지고있는것이현금을보유하는것보다낫다는주장을했다. 이후코로나에의한경제난에허덕이는많은사람들이비트코인을주목하여매수하기시작했고비트코인을채굴하는사람들까지늘어났다. 이비트코인을채굴하는과정에서준수한성능의그래픽카드를장착한컴퓨터와적지않은양의전력이필요하다.

얼핏보면흔한가상화폐관련소식이지만우리는이촌극이얼마나자본주의의비효율성을날날이고발하는지알수있다. 본래화폐란개개인이보유한재산을거래를위한하나의수단으로등장한것인데어느샌가그자체에실재하지않는가치가부여되면서사람들은화폐로무엇을살수있는가보다는화폐그자체에집착하기시작했다. 자본주의가‘발달한’현대에는이런화폐중새롭게비트코인등가상화폐가등장했고이제이실재하지않는화폐를구하기위해현대기술의집약체중하나인그래픽카드와귀중한자원인전력을낭비하게되는것이다.

현재제를살아가는개인입장에서이렇게자원을낭비하면서라도점점가치가‘올라가는’가상화폐를확보하려는것은바람직하다고는못하더라도비합리적이라고비판하기는어렵다. 제대로비판하자면이렇게부조리한경제체제를유지하려는자본주의가문제라할수있을것이다. 그저비트코인과같은가상화폐들이문제일뿐인것아니냐? 라고반론하는사람들도있을것이다. 하지만이렇게비합리적인수익및손실발생이일어나는곳의원조는비트코인이아니라자본주의의중추인주식시장이라는점을생각하면단순히특정신형금융서비스의문제라할수없을것이다.

근래에‘게임스탑’이라는미국게임유통업계의주식과관련해서공매도작전을벌이려던헤지펀드들과이를막으려고단결한개미투자자들과의싸움이발생한적이었다. 이싸움결과실제로개미투자자들이싸움에서승리를했는지, 아니면공매도의실패를통해이익을노리던다른헤지펀드들의승리일뿐인지는함부로뭐라할수없지만확실한것은이역시가짜‘가치’를통한기괴한돈놀이일뿐이다. 주식은본래그기업의수익전망에따른가치를대표해야하는것인데근래에보인게임스탑주식가의기괴한변동은과연진정으로게임스탑의가치를대표한다고하기는어렵다. 그러면이러한경제체제는왜탄생하였는가?

현대의자본주의경제체제는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자원을배분하고생산하기위해존재한다고하지만위처럼알수없이실제로는그렇지않다. 이런경제체제는결국이미대규모의자본을축적해돈소수의자본가들과이에빌붙는권력가들을

안전한곳에서배불리살찌우기위해존재한다. 단순히‘노력’을신봉하며경제지를뒤적이며진작에노동자의품에돌아가야하는주식을구매하여스스로배부른게증이되려해도대부분은사다리를오르다가위쪽에서사다리를흔드는바람에떨어지고말것이다. 우리는더이상그들이우리노동자들이일궈낸기술과자원을낭비하게두면안된다! 노동자여단결하라!

” 일론머스크” 현금보다비트코인보유하는편이 낫다”” :
<https://news.join.com/article/23996006>
” 회사원까지비트코인채굴’ 눈독’...” 한달 180 만원법니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191108244853>
” 채굴용으로쓰던중고그래픽카드절대사지말아야하는이유” :
[http:// it.chosun.com/ site/ data/ html_dir/ 2017/06/27/2017062785032.html](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7/2017062785032.html)
” 공매도를둘러싼싸움, 게임스탑사건” :
<https://blog.toss.im/2021/02/02/finance/news/gamestop-shortselling/>
” 게임스탑, 개미따라한공룡있었다...7800 억원수익누구?” :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204/105282827/1>

3. [그야조합원들을위한의협이지...]

국무총리세균맨께서의협의무단집단휴진협박에대하여, “의협은누구를위한의협이나”면서, “불법집단행동에대하여강력한행정력을발휘하여좌시하지않고단죄하겠다”는의사를밝히시었다.

물론, 의협의소위‘총파업’이불법인것은맞다. 대한민국의노동법은조정전치주의를채택하고있다. 정부가납득할만큼의교섭기간을거치고, 정부기관의조정을받은다음에야합법적인파업이가능하다. 당연히게도그들의‘파업’은불법이다. 의사들의무단집단휴진을‘파업’이라불러주는것은파업한번을하기위해짧게는수개월, 길게는수년간교섭에불잡히고, 현장의조직을지키고, 무노동무임금을감수하며진행하는노동자들의파업에대한모욕인것도맞다. 의협의요구가사회적으로납득하기어려운요구인것도맞다. 코로나-19 로사회모두가통받고있을때, 백신접종일선의의사들의무단집단휴진이광기에가까운행동인것도맞다. 의협이라는작자들이, 자기가원할때에는되도않는‘파업’을하면서, 정작자기병원간호노동자들이나청소노동자들이파업할때에는오히려‘불법’을운운할작자들인것도안다.